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 種에 관한 考察

南 權 熙*

目 次

- I. 緒 言
- II. 續藏經의 雕造過程과 傳存本
- III. 〈圓覺禮懺略本〉
- IV. 〈金剛般若經義記〉
- V. 〈成唯識論述記〉
- VI. 結 言

I. 緒 言

이 研究는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중 아직 發表된 바가 없는 〈圓覺禮懺略本〉, 〈金剛般若經義記〉, 〈成唯識論述記〉¹⁾에 대한 形態書誌學的 考察과 資料紹介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續藏經에 관한 先行의 研究로는 雕造過程 등을 綜合的으로 다룬 大屋德城²⁾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1) 이 3種의 覆刻本은 嚴仁燮씨의 個人 所藏本을 整理하면서 發見된 것이다.

2)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京都: 便利堂, 昭和11(1936))

大屋德城, “朝鮮海印寺經板攷,” 東洋學報, 第15卷 第3號(大正15(1926)), pp. 285~362.

2 圖書館學論集

의 著書를 비롯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³⁾ 大覺國師義天의 思想과 活動,⁴⁾ 現存하는 原本 및 覆刻本 등의 版本研究⁵⁾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先行研究에서 다루어진 것 중 본 研究와 관련이 있는 現存의 原刻本 및 覆刻本들은 日本 東大寺圖書館과 大東急文庫 그리고 趙明基 등에 그 原本이 所藏되어 있고, 全南 松廣寺에 있는 다섯종의 覆刻本이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宋本과 일부 寺刊本 및 《大日本續藏經》 등등의 資料에 高麗 續藏經의 刊行과 關係되는 記錄이 보이고 있다.

한편 近年에 國內所藏의 原本으로 《注仁王護國般若經》⁶⁾과 覆刻本으로 《淨名經集解觀中疏》⁷⁾ 등이 알려짐으로 하여 점차 그 規模가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先行의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본 研究에서 살펴본 세가지 版本을 추가함으로써 이 분야의 研究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특히 밝혀진 세 版本중 두 資料에서 高麗의 原刊記는 물론 版下本을 쓴 사람과 校勘者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高麗時代에 雕造된 세 차례의 大藏經중에서 再雕大藏經은 물론 현재 初雕大

3)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大學院, 1982.

李英子,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獨自性,” 佛教學報, 第19輯(1982), pp. 179~200.

4)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經書院, 1962)

趙明基,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佛教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紀念(서울: 同紀念事業委員會, 檀紀4292), pp. 893~931.

5) 千惠恩,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0).

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86指定篇(서울: 同管理局, 1988), pp.195~196.

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貴重圖書展示目錄(서울: 동관, 1967), p. 2.

藏經마저도 속속 그 現存本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나 유독 續藏經에 관한 印
출된 책이나 關係 記錄이 近者에는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로 여기던 중 새
로운 세 種類의 版本이 발견된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續藏經의 雕造過程과 傳存本

1. 雕造 過程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 大覺國師 義天의 章疏 수집이라든가 《新編諸宗教藏總
錄》의 編成과 續藏經의 刊行時期 등에 대하여 基礎的인 事實은 究明되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過程을 생략하고 結果만을 整理하고자 한다.

특히 刊行 活動을 主管한 義天의 行蹟을 살펴봄으로써 그 대체적인 背景과 輪
廓을 파악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年代順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055年(文宗 9年)文宗의 第四王子로 태어남
- 1065年(文宗19年)11歲로 出家하여 佛日寺에서 具足戒를 받음
- 1069年(文宗23年)祐世라는 法號와 僧統의 職위를 받음
- 1073年(文宗27年)代世子集教藏發願疏를 올림
- 1085年(宣宗 2年)入宋
- 1086年(宣宗 3年)歸國, 興王寺의 住持로 임명
- 1090年(宣宗 7年)《新編諸宗教藏總錄》편성
- 1091年(宣宗 8年)南遊하여 佛書 蒐集, 教藏都監 設置 奏請
- 1094年(宣宗11年)法相宗의 壓迫으로 海印寺에 安居, 興王寺로 復歸
- 1097年(肅宗 2年)天台宗의 國淸寺 住持를 겸임
- 1101年(肅宗 6年)47歲, 法臘36歲로 入寂

* 續藏經 雕造 畢役(千惠鳳 : 1101年 10月)

4 圖書館學論集

위의 年代順 記錄에서 특히 간행 시작으로부터 끝마칠 때까지의 雕造期間에 대하여 선행의 연구에서 異說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 ㉠ 朴奉石⁸⁾ : 宣宗7年 전후에서 肅宗4年
- ㉡ 《高麗史節要》⁹⁾ : 宣宗3年(1086)6月
- ㉢ 金斗鍾¹⁰⁾ : 宣宗8年(1091)에서 肅宗6年(1101)
- ㉣ 趙明基¹¹⁾ : 宣宗8年(1091)에서 肅宗5年(1100)
- ㉤ 千惠鳳¹²⁾ : 宣宗7年(1090)8月 이후, 宣宗8年(1091)봄 이후부터 肅宗6年(1101)10月

이와 같이 始作된 續藏經의 刊行 事業은 現在까지 알려진 刊行本의 雕造刊記가 肅宗4年(1099)의 것이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2年後 義天이 入寂하기 前의 어느 時期까지 刊行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또 全帙 雕造의 與否와 그 數量에 관하여서도 여러 見解가 있어서 《高麗史》의 大覺國師傳과 《靈通寺大覺國師碑銘》에서 章疏4千卷이 刊行되었다¹³⁾는 기록에 問題點을 提起하고 全帙이 아닌 部分的인 간행이었을 것¹⁴⁾이라는 立場도 있으며 國師의 入寂 以後에도 隨時隨處에서 雕造事業이 계속되었을 것¹⁵⁾으로 보기도 한다.

8) 朴奉石, “義天續藏의 現存本に就て,” 朝鮮之圖書館, 第3卷 第6號(昭和9年 1月), p. 33.

9) 高麗史節要, 卷6 “宣宗思孝大王 丙寅 3年(1086) 6月”

... 照獻釋典及經書一千卷 又於興王寺 奏置教藏都監 購書於遼宋日本多至 四千卷 悉皆刊行.

10)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究堂, 1980), p. 76.

11) 趙明基, 前掲書, p. 82.

12) 千惠鳳, 前掲書, p. 95.

13) 高麗史, 下(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61), 影印本, 卷90 列傳 卷第3 宗室 “大覺國師”; 註9)와 같은 內容임.

14) 閔泳柱, “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의 古典百選(서울: 東亞日報社, 1969), p. 57.

15) 趙明基, 前掲書, p. 90.

한편 그 雕造된 刻板의 收藏에 대하여도 異見이 있는 바, 먼저 대부분이 興王寺에 보관되어 있다가 蒙古軍의 侵入으로 말미암아 高宗19年(1232) 江華島로 遷都할 때 蒙古軍에 의하여 燒失되어 板木의 거의 전부가 灰塵되고 그의 일부분이 朝鮮 世祖때까지 남아 있어서 覆刻 또는 重修되어 전한다¹⁶⁾ 고 하는 설과 비록 文獻的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1차의 正藏經板과 함께 大邱부근의 符仁寺에 보관되었다가 高宗19年 蒙古兵에게 함께 燒火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¹⁷⁾는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事實의 여부를 앞으로의 資料나 記錄의 출현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2. 先行 研究에서 알려진 傳存本

1) 原刻本

續藏經은 그 板刻된 數量의 많음과 經典 研究上的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覆刻本을 포함하여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비록 그 전체의 體系를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통하여 파악할 수는 있지만 內容에 있어서도 전하여지지 못하고 斷絶된 章疏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 內容의 중요함은 물론이거니와 板刻에 있어서도 既刊本을 覆刻하거나 重刻한 것이 아니고 高麗의 達筆 書藝家를 選定하여 板下本을 정성껏 淨書하고 徹底하게 校勘한 다음에 精刻한 것으로 雕板印刷術 상에 있어서도 그 優秀성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原刻本은 日本에 東大寺圖書館 所藏의 卷子本 형태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卷一上부터 卷弟二十下까지의 40卷¹⁸⁾과 大東急文庫

16) 上揭書, 同面.

17) 金斗鍾, 前揭書, p. 77.

18) 大屋德城, 前揭書, pp. 64~65.

所藏의 《貞元新譯花嚴經疏》¹⁹⁾가 있고 國內에는 1986년에 寶物 第890號로 指定된 趙明基 所藏의 《注仁王護國般若經》卷一에서 四까지의 한 책이 알려져 있고 그 밖에 續藏經은 아니지만 海印寺 所藏으로 刊行時期와 書體, 版式이 거의 같고 壽昌年代에 刊行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몇 種類의 板²⁰⁾들이 현재까지 남아 전한다.

《注仁王護國般若經》은 全葉 20行의 卷子本 形式에서 10行씩 찍어 내어 線裝本으로 製本되어 있으며 紙質은 楮紙로 품질이 좋다. 또 ‘建’에 避諱缺劃한 것이 보이고 卷三, 四의 10張 미만의 補板은 印出할 때에 없어진 것을 보충한 것으로 續藏經 原刻補板에서 찍어낸 後刷本임을 알 수 있다²¹⁾고 한다.

또 다른 原本으로 推定되는 것으로는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의 腹藏遺物 중에서 비록 그 書名은 확인할 수가 없으나 折帖 형태의 落張에서 續藏經의 原刊記 부분이 나타나 있다²²⁾고 實物 寫眞과 함께 報告되어 있는 바로 이에 의하면,

海東傳教 沙門 義天 校勘

壽昌二年丙子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翰林書藝侍詔臣 裴 簡寫

라는 기록이 있으며 그 크기는 36×16cm로 上下單邊의 線이 있다.

여기서 壽昌2年은 高麗 肅宗1年(1096)에 해당되고 이 해에 刊行된 續藏經은 東大寺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와 日本에 筆寫本으로 전하고 있는 《大

1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前掲書, p. 195.; 大屋徳城, 前掲書, p. 65; 大屋徳城, 寧樂刊經史(京都: 内外出版, 大正12(1923)), p. 57.

20)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pp. 412, 416~418; 金斗鍾, 前掲書, pp. 102~103.

2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前掲書, 同面

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卷末의 刊記와 같다. 물론 이 版本의 刊行 時期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腹藏時의 發願文에 나타난 最下限 年度인 至正6年(1346)²²⁾을 기준으로 한다하여도 高麗의 原刊本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2) 覆刻本과 重刊本

續藏經의 覆刻本으로 알려진 것은 몇 가지가 있어서 이미 先行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많아 여기서는 具體的인 언급은 省略하고 書名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이 중에서 高麗의 原刊記가 있는 것으로는 松廣寺 所藏의 大乘阿毘達摩雜集論疏, 妙法蓮華經續述,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大般涅槃經疏,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과 淨名經集解關中疏 등이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두 종류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고 또 刊經都監의 覆刻刊記만 있는 것으로는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日本의 石山寺에 所藏된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密鈔 등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覆刻本 이외에도 續藏經을 底本으로 重修, 重印하여 本文을 그대로 새긴 것으로는 金光明經文句, 圓覺經大疏釋義鈔, 圓覺經大疏鈔科, 首楞嚴經義疏注, 阿彌陀經通贊疏,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四分律刪繫補闕行事鈔詳集記, 開四分律宗記義鏡鈔, 俱舍論頌疏鈔, 瑜加論疏, 瑜加師地論義演, 起信論疏筆削記, 因明入正理論疏鈔, 華嚴旨歸, 華嚴經內章門雜孔目, 華嚴經行願品疏, 右旋行道破邪願正義, 華嚴經論 등이 있다.

그 외에 高麗의 간기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唐大薦寺故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日本의 高野山 大學圖書館 所藏의 釋摩訶衍論通玄鈔와 釋摩訶衍論通玄疏,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 金剛般若經, 地持論義記, 日本 久原文庫 所藏의 大日經義釋演密鈔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음 다루는 《成唯識論述記》 등

22)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18輯(1975, 12), p. 10, pp. 17~18.

에서는 비록 刊記는 없으나 부분적이거나 續藏經의 體制와 內容을 엿보게 한다.

以上에서 살펴본 여러 殘存 版本을 基礎로 하여 續藏經의 年度別 刊行事業을 刊記 部分만을 참조하여 이를 順序대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續藏經 刊行의 年度別 記錄】

1092 宣宗 9年(大安 8年) (1)唐大薦寺故主翻經大德 法藏和尚傳 卷1

1093 宣宗10年(大安 9年) (2)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卷13,14

1094 宣宗11年(大安10年) (3)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卷4下~卷5下

1095 獻宗元年(壽昌元年) (4)金剛般若經略疏 卷1

乙亥

(5)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卷6上~卷15下

(6)妙法蓮華經續述 卷1,2

(7)貞元新譯花嚴經疏 卷10

(8)金剛般若經

(9)淨名經集解關中疏 卷3,4

(10)大日經義釋演密鈔 卷2

1096 肅宗 1年(壽昌 2年) (11)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卷16上~卷20上

丙子 (12)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 卷6

1097 肅宗 2年(壽昌 3年) (13)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卷20下

丁丑 (原刊本에는 壽昌2年이지만 3年の 誤刻임)

(14)地持論義記 卷5下

(15)《圓覺禮懺略本》 卷3,4

1098 肅宗 3年(壽昌 4年) (16)金剛般若經疏開玄鈔 卷4,5,6

戊寅 (17)《金剛般若經義記》 卷上,下

1099 肅宗 4年(壽昌 5年) (18)大涅槃經疏 卷 9,10

- 己卯 (19)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圖
贊科文 1卷
(20)釋摩訶衍論通玄鈔 卷4
(21)釋摩訶衍論贊玄鈔 卷5

(*)(成唯識論述記) 卷6上半, 下半

Ⅲ. 圓覺禮懺略本

1. 形態書誌學的 分析

1) 外形

이 책은 이미 알려진 松廣寺 所藏의 覆刻本과 거의 같은 外形을 지니고 있으며 그 紙質 또한 楮紙에 藁精紙가 섞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朝鮮 世祖 때의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發見本은 第三卷과 第四卷의 두 책이며 겉표지는 본디 없었던 것으로 보아 腹藏本이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후에 所藏者가 表紙를 새로 만들어 裝訂한 것이며 표지아래 紙念으로 上下 두 곳을 묶어 두었고 그 크기는 34.8×31.5cm이다.

2) 版刻의 比較

이 책의 卷末에는 高麗의 原刊記만이 있을 뿐 覆刻에 관련된 內容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原刊本과 細密하게 觀察, 比較하면 글자의 字劃이 고르지 않으며 굵어지고 둔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 覆刻本으로 판단되지만 대체로 原刻의 상태를 잘 維持하고 있다.

字行과 字數에서 앞면은 14行 20字, 뒷면은 13行 20字로 한 版面은 27行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版式은 續藏經에 있어서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에서 한행이 20字로 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行數面에서는 後述할

《金剛般若經義記》와 松廣寺의 覆刻本이 대부분 한 張에 30行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版式은 匡高 23.5cm의 上下單邊에 無界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卷四의 第6張과 14張 등에서 左右의 邊欄이 나타나기도 하고 版의 左側 끝에 版心題로 《圓覺略儀》三, 四와 張次가 새겨져 있다.

刻力은 일부에서 木理와 刀刻의 흔적이 보이고 覆刻時에 版面을 깊이 새기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印出時의 잘못 등으로 말미암아 印面에 橫으로 여러 곳에서 刀刻의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상태는 松廣寺의 覆刻本중에 《妙法蓮華經續述》卷二 등에서도 보인다.

2. 著者

이 책은 唐代의 圭峯 宗密이 著述한 것으로 書名 다음에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이라 表記하고 있다.

그는 澄觀 이후에 華嚴敎學을 새롭게 전개시킨 사람으로서 姓은 何氏이며 果州의 西充(四川省)에서 태어나 젊어서 儒學을 공부하고 후에 佛敎에 몸을 담아 思想史의 側面에서 본다면 佛敎의 立場에서 儒道二敎를 명확하게 定立시키고 澄觀이 개척한 敎禪一致論을 完成시켰다고 평가된다.

元和2年(807) 그의 25세 때에 遂州의 何澤宗 道圓禪師를 만나 出家하여 그후 얼마 뒤에 圓覺經을 접하고 즐거움을 얻고난 후 평생토록 그 탐구가 생애의 과제가 되었다. 808년에 拯律師로부터 具足戒를 받고 道圓의 스승인 荆南 惟忠을 방문하여 勸誘에 따라서 洛陽 神照에게서 道를 구하였으며 810年 恢覺寺 靈峯에게서 澄觀의 著書를 물려받고 대단히 기뻐하였다.²³⁾

23) 키무라 키요타카, 中國佛敎思想史, 章輝玉 옮김(서울: 民族社, 1987), p. 111.

이어 811년 永穆寺에서 圓覺經을 강의하고 澄觀에게 書翰을 보내어 弟子로서의 禮를 취하고 2년간 侍奉하였으며 816년부터는 著作活動에 들어가 여러 절을 돌아다니다가 821년에 終南山 草堂寺로 물러나 62세(法臘34歲)로 入寂하였다.

그의 著作活動은 圓覺經을 위시하여 華嚴經, 涅槃經, 金剛經, 起信論, 唯識論, 孟蘭盆法界觀, 行願經 등에 대한 疏鈔와 法義, 類例, 禮懺, 修證, 圓傳, 纂略을 著述하고 諸宗의 禪言을 수집하여 禪藏을 만들었으며²⁴⁾ 그 밖에 《四分律疏》5卷과 《鈔懸談》2卷, 《禪源諸銓集都序》2卷, 《原人論》1卷, 《注法界觀門》1卷, 《禪門師資承襲圖》1卷 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宗密이 그와 같이 重要視한 圓覺經²⁵⁾에 관한 것으로 현재까지 그 내용이 전하지 않아 그 全貌를 알 수가 없었으나 비록 零本이나마 발견되어 圓覺經 관계의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關聯된 書誌의 背景

이 책의 書名이 收錄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圓覺經의 項 아래 關聯된 著作은 모두 18種으로 이 책에 대하여는 ‘禮懺略本四卷’이라 表記하고 있고 그 중 宗密의 著作은 9種이나 되어 大疏6卷, 大疏科2卷, 大鈔26卷, 略疏4卷, 略疏科2卷, 略鈔12卷, 道場修證儀18卷, 道場六時禮1卷과 본 책이다.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에 圓覺經을 講하면서 쓴 두 首의 發辭가 있는 바 그에 의하면,

24) 贊寧 撰, 范祥雍 點校, 宋高僧傳, 上(北京: 中華書局, 1987), pp. 124~125.

25) 宗密은 蜀에 머무르는 동안 圓覺十二章을 구하여 깊이 연구하고 이 經을 널리 전할 것을 맹세하였다.; 上揭書, p. 124.

널리 註釋한 疏와 간략하게 풀이한 鈔가 세상에 현행하고 있다. ...의론 한다면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다룬다면 어찌 모순이 없으랴. 이제 이 자리의 대중 가운데 善德으로 더불어 經文의 뜻과 과목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각각 다른이의 그림을 꼬집고 모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이 마땅히 돌아갈 바가 있는 것을 귀히 여긴다. 법을 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략히 말길을 연다. ...

(宗密)이 자료를 모으고 또 圓覺經의 뜻을 註釋한 義鈔를 수정한 것이 모두 13卷이며 다시 略疏4卷과 작은 疏鈔6卷과 道場修證義18卷을 지어 모두 세상에 유통하였는데 이제 강의하는 것은 略疏로서 經을 註釋한 것이다. ...²⁶⁾

라 하여 圓覺經略疏를 講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 圓覺經을 중시함에 있어서 圭峯祖師의 禪教一致 思想을 強調하였다.

그 밖에 이 책을 언급한 資料는 많지 않고 다만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의거하여 引用하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다.

4. 發行事項

1) 刊行 年度

이 책의 原刊記는 高麗 肅宗2年(1097)으로 卷三과 卷四의 卷末 各各의 記錄에 의하면 “壽昌三年丁丑歲高麗國大興王寺 / 奉宣雕造”라 하여 이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같은 해에 《大日本續藏經》에 수록된 慧遠述의 《地持論義記》와 日本 奈良의 東大寺圖書館에 所藏중인 原刻本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의 卷二十之下의 것과 동일하다. 東大寺 卷子本の 卷末

26) 義天, 大覺國師文集, 卷第4, 辭 “講圓覺經發辭二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管理室 譯編, (國譯) 大覺國師文集 (城南: 同研究院, 1989), p. 24, 28.

에 “壽昌二年丁丑歲高麗國大興王寺奉宜雕造”라는 刊記가 있으나 丁丑年은 壽昌3年이 되어야 바르게 되므로 年度 표시에 있어서 誤刻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같은 해에 새겨진 이 책의 刊記는 바르게 되어 있다.

續藏經의 雕造期間을 1091年에서 義天이 入寂한 1101年까지로 잡아볼 때 原本의 刊行時期는 後半期에 해당된다. 그러나 覆刻에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全貌를 알 수는 없으며 松廣寺 覆刻本의 例로 미루어 역시 朝鮮 世祖年間의 刊經都監에서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2) 刊行에 關係된 人的 記錄

卷末에 原刊記와 더불어 다른 原刊本이나 覆刻本에서와 같이 책의 版下本을 쓴 사람으로 “將仕郎諸陵令同正臣 金俊爽 書”과 卷四에는 “明書業及第臣 宋幹 書”가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歷史 記錄類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明書業及第에 관하여 許興植²⁷⁾은 及第者로 活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으나 學試에 보이는 國子監의 書學博士와 文宗30年 田柴科의 書學博士, 穆宗1年 田柴科의 書學博士와 篆書博士 등은 모두 明書業 出身이었을 것으로 高麗의 寫經이나 官刊典籍의 硬直된 필치가 이들의 專門化된 필적으로 추정하였던 바여기의 記錄에 의하여 그 活動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校勘者에 관한 記錄은 卷四의 끝에만 나타나,

講華嚴經興王寺大師 賜紫臣 總敏 校勘

講華嚴經洪圓寺大師 賜紫臣 顯雄 校勘

講華嚴經興王寺大師 賜紫臣 性英 校勘

總敏, 顯雄, 性英의 세 사람이 參與하고 있으나 다른 記錄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이 기록의 추가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校勘者의 所屬 寺刹은 興王寺를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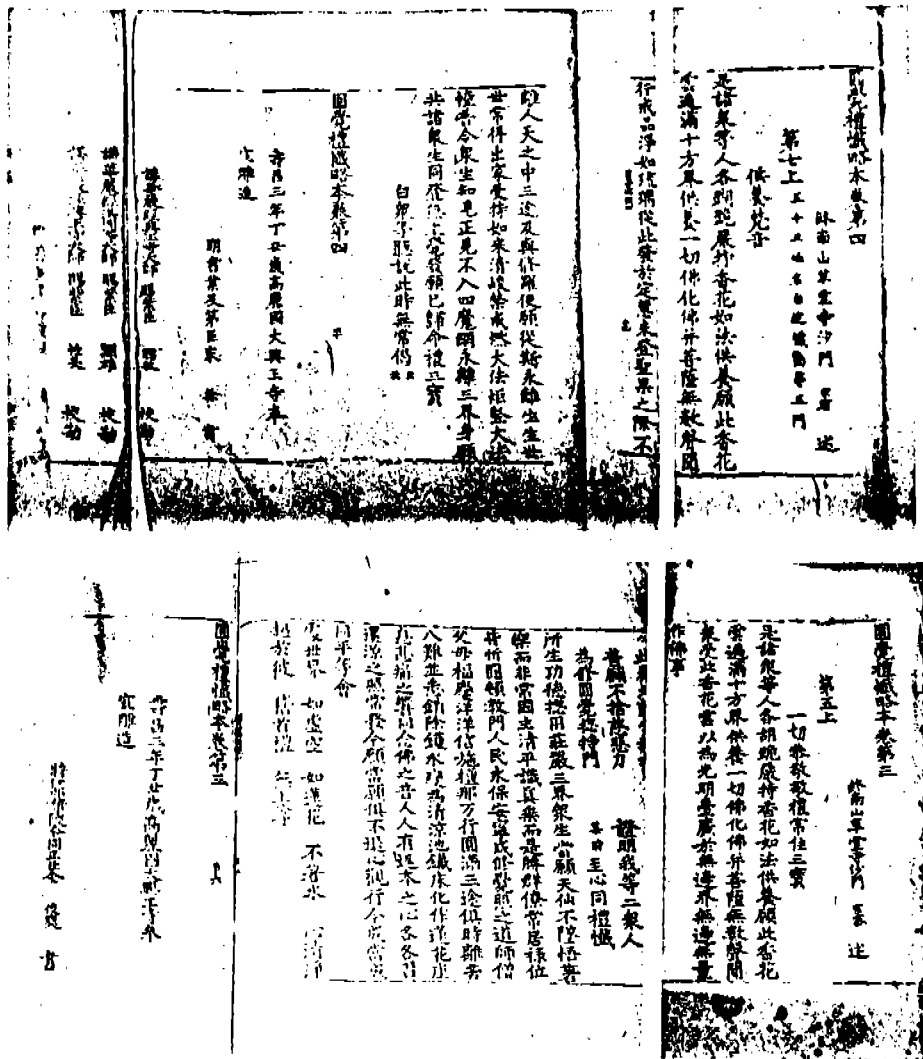
27) 許興植, 高麗科學制度史研究(서울: 一潮閣, 1981), p. 112.

하여 佛日寺, 崇敎寺,²⁸⁾ 玄化寺 외에 洪圓寺를 더하게 되었다.

다만 金富軾이 撰한 開城府의 〈高麗國五冠山大華嚴靈通寺 贈諡大覺國師碑銘〉 左右의 事跡記²⁹⁾에 大覺國師의 門徒職名이 記錄되어 있는 바, 僧統에 이어 首座에 ‘顯雄’이라는 法名이 보이고 또 三重에 이어 重大師에 性英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 두 사람은 義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고 이 資料에서 두 사람의 당시 所屬寺院을 確認할 수가 있어 義天의 門徒研究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 崇敎寺는 《地持論義記》의 卷末에 ‘講瑜伽論崇敎寺大師 賜紫沙門臣 玄漚 校勘’이라는 기록에서 확인되며 穆宗의 顯刹이다.

29) 劉燕庭, 海東金石苑, 上(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pp.363~385. 影印本. 卷五 〈大覺國師墓室及碑銘安立事跡記〉



圓覺禮懺略本卷第四

歸南山草堂中沙門 慧著述
第七上 五十二卷 自此後勸修五門

供養梵音

是諸覺人各胡跪展拜香花如法供養願此香花
香遍十方界供養一切佛化佛并菩薩無數賢聖

行戒品淨如琉璃從此發菩提心盡空界之際不

圓覺禮懺略本卷第四

願人天之中三途及具修羅俱願從將來輪出生世
世常伴出家受持如來清淨妙法燃燈大捨極大捨
極舍令眾生知見正見不入四魔網永離三界身願
共諸衆生同登無上常寶願已歸介紹三寶

白觀子願以此時無常仍

寺昌三年丁丑歲高麗國大興王寺奉

寫經

明善書及第王家

佛華嚴經卷第...

佛華嚴經卷第...

圓覺禮懺略本卷第三

歸南山草堂中沙門 慧著述

第五上

一切衆教禮懺三寶

是諸覺人各胡跪展拜香花如法供養願此香花
香遍十方界供養一切佛化佛并菩薩無數賢聖
供養香花當以為光明覺處於無邊界無邊無量

善願不捨慈悲力

證願我等二人

善願不捨慈悲力

善願不捨慈悲力

所生功德授用莊嚴三界衆生心願天仙不墮悟者
樂而非常因法清平攝真無而通解群佛常居諸位
群佛隨願教門人民永保安寧成修慧願之道師僧
父母福慶洋洋信施獲那方行圓滿三途俱時離苦
入難並悉銷除鏡水現清淨池鐵床化作蓮花庄
莊莊之樂則念佛之音人人有聞不之口各各
運法之願當發願當願俱不現心現行今當當
同乎等會

度世界 如虛空 如蓮花 不著水 心清淨
超於彼 信首禮 無上

圓覺禮懺略本卷第五

寺昌三年丁丑歲高麗國大興王寺奉

寫經

佛華嚴經卷第...

圖版1. 《圓覺禮懺略本》

IV. 金剛般若經義記

1. 形態書誌學의 分析

1) 外形

이 책 역시 이미 言及한 松廣寺 所藏의 覆刻本과 形態上 거의 같을 뿐 아니라 紙質 또한 薰精紙가 섞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朝鮮 世祖 때의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것으로 여겨진다.

發見本은 그 크기가 30.7×40.2cm이며 部分的인 날장으로 表紙나 編綴의 與否는 알 수가 없다. 본디 上, 下의 두 책으로 되어 있으나 發見된 것은 上卷에서 第19, 20張과 下卷에서 第9張부터 21張의 끝까지 그리고 張次를 알 수가 없는 3張이 있었다.

2) 版刻의 比較

이 책의 卷末에는 高麗의 刊記만이 있을 뿐 覆刻에 관련된 內容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原刊本과 比較하면 글자의 字劃이 고르지 않으며 굵어지고 둔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 覆刻本으로 판단된다.

各字에 있어서는 木理와 缺劃된 部分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대단히 잘 새겨져 原本을 짐작하는데 힘들지 않다.

字行과 字數에서 字行은 每張이 15行으로 松廣寺의 覆刻本들과 같으며 字數도 松廣寺本의 22字와 基本的인 狀態는 같으나 部分的으로 張次를 모르는 한 張에서는 한 行이 24字와 25字가 새겨진 것도 있다.

또 대부분의 張에서는 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나 上卷의 19張과 下卷의 14張에서는 左右의 邊欄도 確認되어 19張의 全匡이 56.2cm이며 14張은 56.5cm정도이다. 版心題는 版面의 左側에 〈金剛記〉 上과 張次表示가 있다.

2. 著者

이 책의 著者는 中國 唐代의 知玄으로 처음에는 知玄으로 사용하였고 그의 本姓은 陳氏로 字는 後覺이며 일곱살때 寧夷寺에서 法泰法師로부터 涅槃經을 듣고 削髮하고 四安寺에서 大經 42卷을 받았다.³⁰⁾

淨衆寺의 辯貞律師에게 具戒를 받았으며 武宗이 法乾寺를 지어 그를 머물게 하였으며 裴休와 함께 佛敎의 中興에 힘을 기울이다가 73세로 入寂하였다.

그의 著述에는 《如來藏經會釋疏》2卷, 《大無量壽經疏》2卷, 《勝蔓經疏》4卷과 雜文, 外篇, 箴, 論, 碑, 誌, 歌, 詩를 비롯하여 그 밖에 《般若心經》, 《金剛經》에 대한 各各의 疏義가 전하고 있다.³¹⁾

특히 이러한 그의 傳記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金剛般若經義記》가 그 일부인 것이다.

이 著者 事項에 관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는 “智, 知恩 或作 玄 待勘述”이라고 하여 知恩의 이름이 知玄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밝히고 校勘을 기다린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책 이외의 다른 著述이 수록되지 않아서 推定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宋高僧傳》 등에서 知恩이나 智恩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3. 關聯된 書誌의 背景

이 책의 書名이 收錄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金剛般若經의 項 아래 關聯 著作은 모두 29種으로 이 책에 대하여는 ‘義記二卷’이라 表記하고 있다. 따라서 實物에서 보듯이 上, 下의 2卷 1冊을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30) 贊寧 撰, 前掲書, p. 129.

31) 上掲書, p. 132.

이와 관련하여 《大正新修大藏經》의 no. 2740에 《金剛般若義記》³²⁾ 一卷上이 收錄되어 있는 바, 이는 敦煌에서 筆寫本으로 발견되어 大英博物館에 所藏된 金剛經을 대상으로 한 章疏인 반면에 이 책은 菩提流支가 翻譯한 것을 대상으로 註釋을 붙인 것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³³⁾된다.

그러나 서로의 書名은 거의 같으나 내용은 달라서 知玄의 책에는 事項의 설명에 있어서 ‘經…言’ 내지는 ‘經…者’라는 도입부로 설명하는데 비하여 敦煌本은 바로 ‘…者’로 설명하고 있어서 전혀 별개의 版本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大藏經이나 書誌類에서 이 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發行事項

1) 刊行 年度

이 책의 原刊記는 高麗 肅宗3年(1098)으로 卷末의 記錄에 의하면 “壽昌四年 戊寅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 하여 이는 松廣寺 所藏의 《金剛般若經疏 開玄鈔》의 卷四의 刊記와 일치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續藏經의 雕造期間을 1091年에서 義天이 入寂한 1101년까지로 잡아 볼 때 이 책의 刊行 時期는 後半期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覆刻된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松廣寺 覆刻本의 例로 미루어 역시 朝鮮 世祖 年間에 刊經都監에서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2) 刊行에 關聯된 人的 記錄

卷末에 原刊記와 더불어 다른 原刊本이나 覆刻本에서와 같이 책의 版下本을

32)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編, 大正新修大藏經(東京: 同會, 大正13~昭和9), 第85册, pp. 137~141.

33) 小野玄妙編, 佛書解說大辭典, 第3, 4册(東京: 大東出版社, 昭和43(1968)), p. 499.

쓴 사람과 校勘한 세 사람에 대하여,

秘書省 楷書同正臣 吳代公 書
講華嚴經佛日寺大師 賜紫沙門臣 覺之 校勘
講華嚴經佛日寺大師 賜紫沙門臣 滋顯 校勘
講華嚴經興王寺大師 賜紫沙門臣 德延 校勘

과 같은 記錄에서 그 所屬과 役割을 밝혀 두고 있다.

먼저 版下本을 쓴 吳代公이란 人物은 記錄이 없어 현재로선 알 수가 없고 같은 所屬과 職位는 松廣寺 覆刻本중의 《妙法蓮華經續述》卷第一의 뒤에 “秘書省 楷書同正臣 南宮 禮 書”라는 기록과 《大日本續藏經》에 실린 《金剛般若經略疏》에서 “秘書省 楷書臣 魯榮 書”라는 기록이 보여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版下本을 쓴 사람들의 所屬과 職位를 보면 ‘高麗院書者’ ‘將仕郎尙舍直良國正’ ‘將仕郎尙衣直長同正’ ‘將仕郎司宰主淳同正’ ‘將仕郎司宰丞同正’ ‘明書業及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秘書省 所屬의 사람이 두번째의 頻度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校勘者에 대한 記錄에서 佛日寺의 覺之는 義天이 華嚴宗 즉 圓宗의 浩瀚한 典籍에서 精要를 뽑아 類別로 蒐集하여 22卷으로 만든 《圓宗文類》의 卷末에 表示된 16人的 校勘者 중에서 “佛日寺寶王院講賢首敎觀義學沙門賜紫臣 覺之 詳校³⁴⁾”라 하여 覺之가 佛日寺에서 義天을 도와 佛書의 刊行에 여러 차례 參與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간행의 시기에 대하여 大屋德城은 대체로 宣宗때라고 보고³⁵⁾ 있어서 肅宗때에 해당하는 續藏經 《金剛般若經義記》의 편찬 이전부터 서로 關係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滋顯은 覺之와 같이 佛日寺에 所屬되어 있었으며 松廣寺 覆刻本중의 《金剛般若經疏開玄鈔》卷六의 卷末에 “講華嚴經佛日寺慧炤大師賜紫沙門臣 滋顯

34)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 p.127.

35) 上揭書, p.129.

校勘”이라 하여 同一人物임이 확인된다. 즉 滋顯은 같은 해에 《金剛般若經義記》나 《金剛般若經疏開玄鈔》와 같은 金剛經 關係 章疏의 편찬에 참여한 人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興王寺 소속의 德延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出此六頌後此即第一來燒也外人雖有是疑善理應
 伏六故云汝等勿謂如來作是念也 種種菩提其作是
 念第二止也若生此見便係菩提正覺者不得菩提是故
 如來作是念也 經何以故第三頌問也度生智見
 其故何耶 經答無有無也如來度者第四頌也一異
 法界極河沙緣起緣無自性身即善空佛不度生義在於
 此也 經若有眾生如來度者如來即有眾生眾生者
 第五出過也若使諸佛見彼五陰是眾生體言其能度今
 得解脫者諸佛即有同凡夫之過所以略者以乘統故
 我第六顯德也文復有二一皆對探勝二引說證成此即
 初也一切凡夫有分別我見一曰聖者皆已斷之然俱
 生我執修進修中餘聖分除無一人斷我執言我除斷餘
 聖言曰未上無備莊每一曰未直由比如來或顯自在德
 非有我者之同凡夫或直心中說有我而凡夫之人
 為有我者凡夫妄執以為實者也 種種菩提凡夫者如
 來說即非凡夫第二引說證成也引佛身說證成者為
 明聖證身世說故言凡夫者謂愚暗凡夫也如來說即非

常共常故常入涅槃常共無常以常為眾生說法上來明
 正宗分訖 種種菩提經已長老宿昔提凡指比丘比丘
 尼傳婆塞傷婆塞一切世間天人阿僧祇開佛所說皆大
 歡喜度衆行

大文第三明法通分也釋此文意 種種菩提經有佛
 持法不可稱量深句義從尊者問取廣說迴此福德地群
 生云此頌上二句歡法甚深下二句中已迴向略示初學
 之門故此粗為科釋欲求廣解應尋大疏

金剛般若經義記卷下

五

壽昌四年戊寅歲高麗國大典寺寺奉

寶雕造

秘書省圖書印臣匡夫代書

講義最聖佛言大旨賜然印臣 覺之 拔勤

講義最聖佛言大旨賜然印臣 覺之 拔勤

講義最聖佛言大旨賜然印臣 覺之 拔勤

講義最聖佛言大旨賜然印臣 覺之 拔勤

圖版2. 《金剛般若經義記》

V. 成唯識論述記

1. 形態書誌學的分析

1) 外形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覆刻本과 外形의으로 달라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훨씬 線裝方冊本에 가까워진 형태로 그 크기는 31.8×21.9cm이며 五針眼으로 編綴되어 있고 張次的 配列로 보아 처음의 간행은 卷子本의 形式으로 보여진다.

發見本은 卷六이며 上半이 50張, 下半이 55張으로 나뉘어진 2卷1冊으로 앞 表紙 題簽의 印刷된 邊欄속에 鶴立蛇橫의 表示가 있고 그 아래에 〈成唯識論述記卷第六〉이라고 筆寫되어 있다. 종이의 質은 앞의 두 版本과 마찬가지로 楮紙에 薰精紙가 섞여 있고 그 시대를 미루어 推定하면 刊經都監 刊行의 책들과 비슷하나 覆刻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斷定지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 책의 전체 규모는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의하면 ‘述記二十卷 或十卷’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實物에 根據하여 보면 한 권내에 다시 上과 下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날 線裝本의 관점에서 본다면 20卷 10冊이 되겠으나 당시의 裝訂 단위로서는 表現上 문제가 따랐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新編諸宗教藏總錄》에 표시된 이와 같은 많은 기록은 모두 대부분 한 권내에서의 上, 下로 내용 구분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2) 版刻의 比較

이 책은 앞서의 두 版本과는 달리 高麗의 原刊記 뿐만 아니라 朝鮮의 覆刻刊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書體라든가 版式이 續藏經의 그것과 같고 또 그 書名 또한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만 보일 뿐 다른 書誌類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原刊本과 比較할 때 글자는 字劃이 굵어지고 둔해져서 고르지 않으나 字數와 行間, 版面의 크기나 體制面에서 考慮할 때 原刊本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版式에 있어서 四周雙邊에 匡高는 22.4cm(上半의 第1張)이며 인쇄된 한 장의 앞뒤에 각각 11行씩 들어가 있고 每張의 좌우에 單邊이 새겨진 것은 覆刻時에 線裝本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시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張次와 行數의 면에서 항상 23行씩을 건너 張次가 바뀌고 있어서 原刊本의 形態가 卷子本내지는 折帖의 形態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통상 卷子本의 高麗本을 朝鮮 初期에 覆刻한 것에서 가끔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形式은 松廣寺 所藏本과 앞서 소개된 몇종의 續藏經 覆刻本에서 나타난 한면 15行的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後述될 內容과 같이 처음의 刊行處가 다른 版本이 興王寺인 것에 비하여 달리 金山寺 廣敎院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字數에 있어서 다른 版本은 22字를 基本으로 한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22字와 23字가 거의 같은 頻度로 나타나고 적게는 20字부터 24字에 이르기까지 出入이 많아서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고르지 못한 편이다.

行數에 있어서도 다른 版本이 30行 전후로 되어있는 반면 여기서는 23行으로 비교적 짧은 것이며 그 原本은 卷子本이거나 版心題를 포함하여 6행씩 한편으로 된 折帖일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資料로서는 알 수가 없고 版心題는 예를 들면 ‘述記六上(下)半 十二(張次)’와 같이 記錄되어 있다.

2. 著者

이 책은 法相唯識宗에 속하는 窺基가 著述한 것으로 그는 京兆長安 사람이며 姓은 尉遲, 字는 洪道라 하였고 唐 太宗의 貞觀6年(632)에 태어나 17歲에 出家

하여 勅命에 따라 玄奘의 제자가 되었다.³⁶⁾

처음에는 廣福寺에 머물렀으나 후에 大慈恩寺로 들어가 25歲때부터 詔勅에 응하여 經典의 翻譯에 從事하였고 大小乘의 敎說도 강의하였으며 계속 慈恩寺에 머물러 있었던 까닭에 慈恩大師라 칭하기도 하고 玄奘의 종애로 譯場에 참여하고 많은 註釋과 論疏를 저술하여 ‘百本の 疏主’³⁷⁾라 불리기도 하였다.

窺基는 一切事物의 物理現象과 心理現象을 佛敎의 名相을 사용하여 分析과 解析을 행하면 일체의 사물이 唯識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歸結된다는 成唯識論을 근본적인 근거로 하여 法相敎學의 研究와 思想의 流布에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唯識에 대하여 《成唯識論述記》에서,

“唯란 가려 살피는 것으로 바깥에 境界가 없음을 가로막으며, 識이란 깨우치는 능력으로 안에 마음이 있음을 드러낸다. ...마음을 본래대로 되돌려서 거짓된 모습을 사라지게 하는 것, 즉 그것을 唯識이라 부른다”³⁸⁾

는 등 法相宗은 佛敎의 여타 다른 학파와 달리 훨씬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물질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디 法相宗은 印度에서 無着(Asanga)과 世親(Vasubandhu)에서 시작하여 그 뒤 護法(Dharmapala)과 그의 제자 戒賢을 거치고 玄奘이 戒賢에게 배워서 중국에 전해지고 窺基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그는 이 宗의 대표적인 주요 經典인 解深密經, 瑜伽師地論, 成唯識論 등에서 成唯識論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成唯識論은 世親의 《唯識三十頌》을 10인의 印度 唯識學者들이 주석한 것으로, 玄奘이 처음에 神昉, 嘉尚, 普光, 窺基의 네 사람과 함

36) 吳亨根, “中國窺基法師의 敎判思想,” 佛敎學報, 第16輯(1979), p. 170.

37) 贊寧 撰, 前掲書, p. 66.

38) 任繼愈, 중국 중세 불교사상 비판, 추만호, 안영길 공역(서울: 民族社, 1989), p.

게 따로따로 翻譯하려고 하였으나 窺基의 말을 듣고 두사람이 護法의 註釋을 翻譯한 후에 다른 9인의 論을 합쳐서 完成한 것³⁹⁾이다. 이어서 窺基는 玄奘의 解說에 근거하여 《成唯識論》을 위하여 《成唯識論述記》⁴⁰⁾를 지었고 또 《成唯識論掌中樞要》, 《唯識二十論述記》, 《成唯識論別抄》, 《成唯識論料簡》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련된 著述이 있다.

3. 關聯된 書誌的 背景

이 책의 書名은 《新編諸宗教藏總錄》卷第三의 成唯識論아래에 ‘述記二十卷或十卷 窺基述’이라 표기하고 그 외의 관련된 著作으로 窺基의 開發章4卷과 掌中樞要4卷을 포함하여 28種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唯識論과 義天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그는 天台學者이면서도 당시 華嚴敎學과 가장 강력한 論質關係에 있던 法相敎學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大慈恩 玄化寺에서 渡宋 前에 祐翔스님에게 唯識學을 배우고 宋에서도 東京 顯聖寺의 慧林法師, 法相宗의 善淵 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익힌 바가 있다. 이러한 義天의 成唯識論에 대한 관심은 華嚴宗의 立場에서 당시의 라이벌 關係에 있던 法相宗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方편으로 華嚴學의 체계 속에 唯識學을 포섭한다는 性相融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⁴¹⁾으로 그의 文集중의 〈刊定成唯識論單科序〉〈上唯識論單科表〉 등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는 〈刊定成唯識論單科序〉에서 밝히기를,

39) 弘文館出版社編輯部 編, 中國佛教思想資料選編, 第三卷(臺北: 同出版社, 民國75 (1986)), p. 48.

40) 다른 名稱으로 成唯識論疏 또는 唯識述記라고도 한다. 方立天 著, 불교철학개론, 劉英姬 옮김(서울: 民族社, 1989), p. 82.

41) 崔炳憲, “解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管理室 譯編, 前掲書, pp. xxvii~xxviii.

起信論은 또한 조금 익힌 바가 있었지만唯識論에는 그 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저 번거로운 이론에 빠져서 그 중요한 뜻을 미혹시킬까 두려워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本記를 연구하고 옛 과목을 음미, 탐구하여 번거로운 곳을 짚아내고 정리하여 세 권으로 엮었다.⁴²⁾

에서 보듯이 비록 華嚴學者이지만唯識論에 관하여 著述을 남길 만큼 관심이 많았으며 또 이를 宋, 遼, 日本에 까지 보내어 高麗 佛教의 宣揚에 노력⁴³⁾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書名이 收錄된 藏經으로는 天寧寺大藏經(1149~1173)에 10卷으로 科文이 本目뒤에 붙어 있고 我藝函에 들어 있으며, 至元法寶勘同總錄의 務字函에 또 大日本校訂藏經及續藏經, 大正新修大藏經에도 收錄⁴⁴⁾되어 있다.

또 현재 國內에 전하는 것은 東國大學校 圖書館 所藏⁴⁵⁾의 中國本으로 60권 20책⁴⁶⁾이며 光緒27年(1901) 金陵의 金陵刻經處에서 木活字로 刊行한 것이나 續藏經의 내용과 비교하여 본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內容面에서 《大正新修大藏經》과 續藏經을 卷六만으로 비교하여 본 결과 전체의 내용 전개와 순서는 거의 같으나 간혹 문장의 倒置라든가 省略, 文章變形 등이 보이고 있었다.

42) 大覺國師文集, 卷第1, 序, “刊定成唯識論單科序,”;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管理室 譯編, 前掲書, p. 11.

43) 李萬, “大覺國師 義天의 唯識觀,” 佛教學報, 第21輯(1984), p. 184.

44) 蔡運辰,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72(1983)), p. 209.

45)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古書目錄(서울: 同圖書館, 1981), p. 224.

46) 方立天, 前掲書, p. 82에서 成唯識論述記의 版本으로 10卷, 20卷, 60卷의 세 종류를 들고 있다.

4. 發行 事項

이 책은 原刊記나 覆刻의 刊記가 없어서 그 出版에 대한 구체적內容은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全北 金堤郡에 있는 金山寺의 高麗 睿宗6年(1111)에 세워진 〈贈諡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에 관련된 기록이 보이는 바로 《成唯識論述記》의 간행에 관한 唯一한 資料가 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大安初師以手校唯識開發□□□□□□□□初失其本積有年矣 既得之尊
尚者衆矣 師曾於金山寺選勝于寺之南武六十許步地創成一院額號廣教仍筆
□雕經板置于院院之中□造金堂一所并繪廬舍那及□□□□□□□□□
□其堂 自太康九年至師之末年 搜訪慈恩所撰《法華玄贊》《唯識述記》等章
疏三十二部共計三百五十三卷考正 其本募工開板□其紙墨印□流通以廣法
施也⁴⁷⁾

라고 하여 慧德王師는 遼의 太康9年(1083) 즉 高麗의 文宗37年과 順宗의 교체 시기에 해당되는 때로 續藏經의 전면적인 板刻이 시작되는 1090年 내지 1091年 보다 몇년이 더 빠른 시기부터 壽昌年間に 이르기까지 32部 합353卷의 章疏를 考正하고 開板하였던 것이다.

이 책의 編纂과 刊行에 주도적인 役割을 한 慧德王師(1038~1099)는 姓은 李氏이며 諱는 韶顯, 字는 範圍로 17歲에 海安寺 海麟國師에게 得道하고 金光明經과 唯識論 등을 학습하였으며 文宗15年(1061)에 王輪寺에서 大德의 登位를 거쳐 同王23년에 重大師가 되었다.⁴⁸⁾

그리고 續藏經과의 관련에 있어서 趙明基는 이 章疏의 刊行이 義天의 洪願을

47)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上(京城: 朝鮮總督府, 大正12(1923)), pp. 296~303.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pp. 544~545.

48) 佛敎史學會 編,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서울: 民族社, 1989), pp. 176~177.

助力한 것⁴⁹⁾이라 보고 이 이유로서 大安4年(1088)에 바로 이곳 廣敎院에서 刊行되었던 慈恩의 《阿彌陀經通贊疏》卷下の 刊記에서의 “此 祐世僧統於元豐元祐之間 入于中華 求得將到流通之本也 予助洪願 付於廣敎院 命工重刻”이라는 記錄을 들고 있다. 즉 金山寺의 廣敎院은 續藏經내지는 義天이 구하여 온 章疏의 刊行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崔柄憲⁵⁰⁾은 韶顯이 唯識學의 章疏를 간행하여 유통케 한 것은 신라말기 이래 침체되었던 唯識學을 선양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義天이 華嚴宗 입장에서 章疏를 수집하여 간행한 續藏經에는 따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두 가지 章疏 刊行事業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敎藏都監에서 다시 같은 책을 刊行하였을 可能性도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慧德王師는 義天의 외삼촌으로서 章疏 考正을 시작한 1083부터 入寂할 때까지 즉 續藏經의 刊行事業이 계속되던 시기에 같은 책을 두 곳에서 刊行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義天을 助力하여 廣敎院에서 찍은 것이라면 二重으로 刊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推論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 板刻이나 行字數를 보더라도 그 체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行數와 字數가 알려진 다른 版本들과는 구분이 되는 점에서 刊行處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현재로서는 간행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49) 趙明基, 前掲書, p. 89.;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 上” 東洋學報, 第13卷 第3號(大正12(1923), 8), pp. 353~354.

50) 崔柄憲, “高麗中期 文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陸盛,” 佛敎學會 編, 高麗中·後期佛敎史論(서울: 民族社, 1986), p. 123.

成唯識論述記卷第六下

慈恩寺藏經沙門基撰

論有言略標差別相 述曰下重解六位心所察中
 有二初標前所說撥勸教與後隨未解釋此即初也
 就解釋中大文有二初以五頌別顯心所後標即簡心
 正與心為一為無執此初中分為五段初一段二
 頌辨善位六段辨煩惱位六段辨隨煩惱位六段
 辨不定位初以六頌辨三位中有二初顯
 答 論是初二位其相云何 述曰即初
 所殊事不同 述曰下第二段別答前問
 初位顯前本識已辨其相今略標之 上顯

成唯識論述記卷第六下

慈恩寺藏經沙門基撰

論二近執見至出離為等 述曰謂由於前我見執我已
 隨此我見後執我為所當謂察前所緣我善提淨非所當
 說有因未度中行道諦及出離滅淨然此是撥 捨此
 見差別至分別契攝 述曰此下別說察此邊凡攝六十
 二見中四十七見習四過常乃至無想及非有想非無想
 此見俱非已未四十七見是常見七斯識論是斷見俱我後
 生意緣我執有常新故言等者等取十四不可說事中
 四常等中常等是常見無常等是斷見際過字四彼之
 耶見知未死後四中亦有等是常非有等是斷命與身

圖版3. 《成唯識論述記》

VI. 結 言

이상과 같은 研究를 통하여 새로 발견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圓覺禮懺略本》, 《金剛般若經義記》, 《成唯識論述記》의 3種에 대하여 概括的으로 살펴 보았으며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圓覺禮懺略本》과 《金剛般若經義記》에는 비록 覆刻에 관련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더욱 중요한 高麗의 原刊記와 더불어 版下本을 쓴 名筆家와 校勘에 參與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이 분야 연구의 具體的 資料가 된다는 의미에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成唯識論述記》는 그간의 先行研究에서는 慧德王師 韶顯에 의하여 金山寺 廣敎院에서 刊行된 章疏중 唯識述記의 간행에 관한 언급이 많았으나 그 실물이 전하지 않아 궁금히 여기던 차에 이제 覆刻의 寫本이나마 그 내용을 짐작케 하는 資料가 발견되어 그 기록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셋째, 《圓覺禮懺略本》은 壽昌3年(1097)에 興王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宋翰과 金俊爽이 版下本을 쓰고 總敏, 顯雄, 性英이 校勘하였으며 發見本은 卷三과 四이다. 形態的인 面으로 본다면 朝鮮 世祖때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覆刻本과 같은 系統의 것으로 보여진다.

네째, 《金剛般若經義記》는 壽昌4年(1098)에 역시 興王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吳代公이 版下本을 쓰고 覺之, 滋顯, 德延이 校勘하였으며 發見本은 上卷과 下卷의 낱장 十餘張이다. 여기에 나오는 校勘者중 覺之는 《圓宗文類》에 滋顯은 다른 續藏經의 覆刻本의 校勘者로 각각 登載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역시 《圓覺禮懺略本》과 마찬가지로 朝鮮 世祖때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覆刻本과 같은 系統의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成唯識論述記》는 形態的인 面에서 다른 覆刻本들과 차이가 있어 製本의 形式이 線裝本에 가까와지고 字行字數가 1行 22字와 23字가 거의 같은 정도로 배열 되어 있다든가, 原刊本의 行數가 每張 23行으로 되어 있는 점도 다

은 覆刻本과 달라서 이는 興王寺가 아닌 金山寺 廣敎院에서 刊行하였던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書體라든가 體制는 다른 覆刻本과 거의 類似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結果를 통하여 비록 세 版本이 內容上 서로의 관련은 없지만 아직 그 內容이 알려지지 않았던 《圓覺禮懺略本》과 《金剛般若經義記》의 殘存部分을 통하여 宗密과 知恩의 著作을 確認할 수가 있었으며, 《成唯識論述記》는 中國과 日本에서 그 內容은 알려져 있었으나 高麗의 續藏經과 比較할 때 文章의 順序가 서로 다르다든가 同意異字의 使用이 빈번하고 內容에 있어서도 다른 版本에 없는 內容이 高麗本에는 記錄되는 등 差이가 적고 전체적으로 高麗本이 훨씬 仔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高麗 續藏經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많은 새로운 資料가 發掘되어야 할 것이며 이 研究도 그러한 바탕에서 概括적으로 資料의 소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 것으로 그 구체적 思想性이나 校勘學的인 面은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아뭏든 새로운 資料와 記錄이 이 分野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參考文獻

-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十八輯(1975, 12), pp. 1~18.
-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第五卷 第五號(昭和11年, 10月), pp. 10~3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6; 고려, 고려 귀족사회의 문화,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3.; 金斗種.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80.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

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82.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雕造攷. 京都: 便利堂, 昭和11年(1936)

大屋徳城.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第15卷 3號(大正15年), pp. 285~362.

東國大學校 出版部 編. 高麗佛籍集佚; 曉城先生八旬頌壽. 서울: 同出版部, 198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서울: 同管理局, 1988.

朴奉石.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 朝鮮之圖書館. 第三卷 第六號(昭和9年, 1月), pp. 31~38.

朴尙均. “高麗時代 經典 輪傳에 關한 考察.” 奎章閣. 3(1979), pp. 57~83.

朴泳洙.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紀念. 서울: 白性郁博士頌壽紀念事業委員會, 檀紀4292, pp. 413~453.

方立天 著. 불교철학개론. 劉英姬 옮김. 서울: 民族社, 1989.

佛敎史學會 編.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 서울: 民族社, 1989.

佛敎學會 編. 高麗中・後期佛敎史論. 서울: 民族社, 1986.

崇山朴吉眞博士回甲紀念事業會 編. 韓國佛敎思想史. 裡里: 圓佛敎思想研究院, 1975.

安春根. 韓國佛敎書誌考. 서울: 成進文化社, 1972.

義天. (國譯)大覺國師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管理室 譯編.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李 萬. “大覺國師 義天의 唯識觀.” 佛敎學報. 第21輯(1984), pp. 175~188.

李英子.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獨自性.” 佛敎學報. 第19輯(1982), pp. 179~200.

任繼愈. 중국중세불교사상비판. 추만호. 안영길 共譯. 서울: 民族社, 1989.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東國文化社, 1964.
- 趙明基.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 頌壽紀念. 서울: 白性郁博士頌壽紀念事業委員會, 檀紀4292, pp. 893~931.
-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 京城: 朝鮮總督府, 明治44年(1911).
- 池內宏. 滿鮮史研究; 中世篇.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54年(1979).
- 贊寧 撰. 范祥雍 點校. 宋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87, 2冊.
- 蔡運辰.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昭考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72 (1983).
-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注華嚴經.” 東方學志. 第54, 55, 56合輯 (1987, 6), pp. 903~919.
- 키무라 키요타카. 中國佛敎思想史. 章輝玉 옮김. 서울: 民族社, 1989.
-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弘文館出版社編輯部 編. 中國佛敎思想資料選集. 第三卷, 臺北: 同出版社, 民國75年(1986).
-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敎史學論集;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 서울: 民族社, 1989.

On the Three Kinds of the Continued Edition of Tripitaka
; Through the Recarved Editions found in recent.

Nam, Kwon-Heu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hree kinds of recarved books that were Wongak-Yecham-Ryakbon(圓覺禮懺略本), Kumkang-Banyakyung-Uiki(金剛般若經義記), Sung-Yusikron-Sulki(成唯識論述記).

The original edition of these recarved books were published by UiChon(義天) in Heungwang Temple(興王寺) with the Continued Edition of Tripitaka in the king Sukjong(肅宗) of the Koryo Dynasty.

The continued edition was the collections of various and interpretations of Tripitaka, gathered from Song(宋), Japan and Liao(遼).

This continued edition is not a imitation of any others but it is the original product of Koryo. The blocks were carved from the carefully proofread script of Koryo's best calligrap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riginal edition of the Wongak-Yecham-Ryakbon was published at the third year of Suchang(壽昌) in Heungwang Temple. The names of two calligraphers and three proofreaders are recorded in the last part of the book.
2. The original edition of the Kumkang-Banyakyung-Uiki was also published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t the fourth year of Suchang(壽昌) in Heungwang Temple. The publication data are recorded in the last part of the book that the calligrapher was ODaegong(吳代公) and the three proofreaders were Gakji(覺之), Jahyun(慈顯) and Dukyeon(德延).

3. The Sung-Yusikron-Sulki is different from other recarved editions in physical format such as number of lines and letters in one printing page. The original edition of this book was published at Kwangkyowon(廣教院) in Kumsan Temple(金山寺) by Hyaedukwangsa(慧德王寺).

4. The contents of these recarved editions are recently discovered.